신한 속보

한화오션

Bloomberg Code (042660)

Reuters Code (042660,KS)

주가 (6월 21일)

31,750원

시가총액

9조 727십억원



Analyst

이동헌 연구위원 02-3772-2675 ⊠ Idh@shinhan.com

▶ 한화오션, 한화시스템과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참여

- 6/21 공시를 통해 미국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 Inc.) 인수 참여를 발표, 11월 중 완료 예정. 전체 1억달러(약 1,380억원)에 인수. 지분은 한화오션 40%, 552억원(4천만불), 한화시스템은 인수를 위한 신설법인 HS USA Holdings(가칭)에 883억원을 투자. 필리조선소 지분 60% 인수 목적
- 한화오션의 인수배경: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에 따른 상선/방산 분야 미국 시장 진출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
- 한화시스템의 인수배경: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당사 해양시스템 기술력과의 시너지 사업 확대

▶ 필리조선소, 미국 내 다양한 선박 건조

- 필리조선소는 노르웨이 에너지 전문기업 아커의 미국 소재 자회사. 1997년 미 해군 필라델피아 국영 조선소 부지에 설립, 노르웨이 상장
- 최근 시가총액은 인수 발표로 6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급등(35크로네에서 최근 64크로네). '23년 실적은 매출액 581억원(4.4억크로네), 영업이익 -94억 원. '18~23년 6년 연속 영업적자. 순자산은 388억원, 부채 368억원
- 2000년 이후, 존슨액츠법(연안상선법) 상 해당 선박의 50%를 인도, 건조 이력은 컨테이너선 6척, 탱커 24척, 수리선박 3척 등

▶ 미국 본토 진출의 역사적 전환점

- 국내 기업 최초 미국 조선업 진출. 미국 상선 및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
-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은 "미국 해양 국가전략의 판도를 뒤집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
- 남중국해 등의 갈등이 확대되며 미국은 해군력 강화가 필요. 미국의 조선업 낙후로 한국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 이번 인수를 통해 구체적인 발판이 마련됨. 방산과 상선의 다양한 시너지를 예상. 한화오션은 이외 오스 탈, 시추업체 등 추가적인 업체 인수도 추진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동헌)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 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 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